

꿈꾸지 않으면

양희창 작사
장혜선 작곡



‘사랑’과 ‘자발성’의 제천간디학교 계간

간디IN

계간 간디IN 발행일 2008년 3월 6일 통권 제8호(2007 겨울 · 2008 봄 통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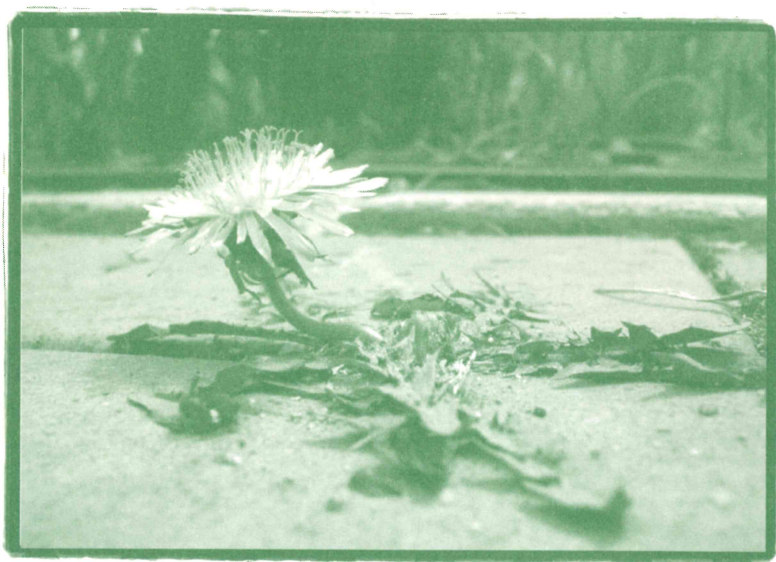
발행처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2007 겨울에서 2008 봄으로



제천간디학교

<http://gandhischool.org>



봄빛이 남김없이 드러나기까지
아픈 언덕을 얼마나 걸어 넘었을까요
이렇듯 고운 민들레가 다정한 길모퉁이에
나지막하게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어 걸었을까요
봄빛을 담은 사람과 사람들이
땀 냄새 나는 시간을 공들여 살아오는 동안
속 깊은 아픔을 삭이고 가슴 졸이며,
눈물겨운 마음 키를 얼마나 키워왔을까요
이제 오랜 길을 함께 걸으려서
서로 공유하며 남김없이 사랑하며
견줄 수 없는 시간에 삶의 냉쿨을 뺀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간디인



| 표지사진 |
봄이 오는 소리

제천간디학교 소식지 계간

간디IN

2008년 3월 · 제8호(겨울 · 봄 통합호)

여는 글	04	눈길을 걸으며 노경환
주제가 있는 이야기	06	2007년 나의 겨울 이상민
겨울	08	겨울의 따뜻한 산행 안효진
	10	누구 꼬리가 이렇게 길지? 이광구
	1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한솔
	14	추억 전동녕
교과속으로	16	마음을 여는 길, 마음대로 장성규
동아리한마당	17	맑은 자연의 소리 '거위의 꿈' 김유진
인물탐방	18	간디 사랑, 동원 사랑 조하늘
사설	20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다 이에나
꿈꾸는 간디	22	친구랑 책이랑 꿈터에서 놀자~ 윤영미
단신	24	간디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쉬어 가는 쪽	26	가슴 뛰도록 설레던 길 기돈
CMS후원회원	27	

| 발행일 2008년 3월 6일 | 발행인 양희창 | 만든지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

| E-mail aaaa0_0@hanmail.net | 주소 390-85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9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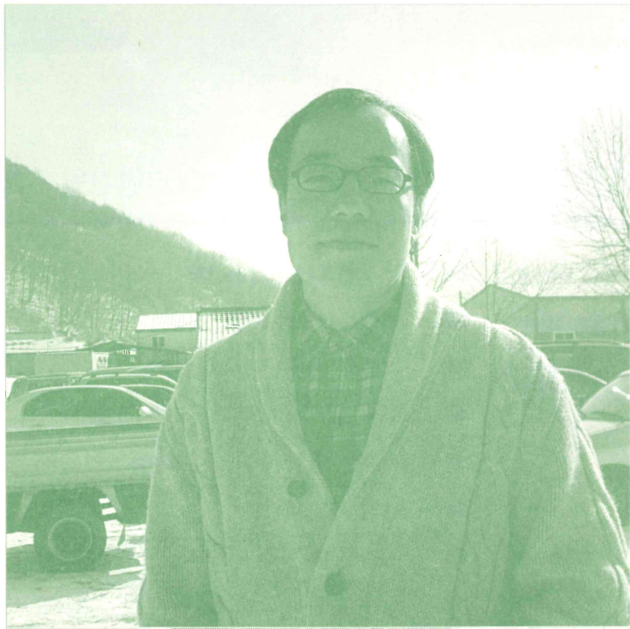
| 전화 043-653-5792 | 전송 043-653-5781 |



겨는 글

눈길을 걸으며

노경환 _ 교사



올겨울 세 번째 눈이 내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하얀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을 비비는 일도 잊은 채 들뜬 마음으로 두꺼운 옷가지를 주섬주섬

신발만 신고 아침산보를 갑니다.

상상 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집 처마를 나서자마자 내 볼 살에 와 닿는 눈결은 겨울이 주는 첫 사랑처럼 묘합니다.

하늘과 땅 들과 산 모든 것에 구분이 없어진 더운 자리마을 풍경!

그 풍경은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한 아침 산보 길을 열어줍니다.

앞산 떡갈나무 숲속에서는 벌써 삼삼오오 무리를 지으며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이 하늘을 깨우고 힘껏 가지를 뻗어 눈을 맞는 나무는

어느새 내 키보다 낮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더함도 덜함도 없이 온 몸으로 눈을 품은 들녘은 어느새 평평한 흰 바다가 되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산책길 차갑다 못해 따뜻한 착각마저 드는 신발 속 맨 발가락!

그 살 속으로 이 겨울아침 세상에 찾아온 속 깊은 눈의 마음이 전해 옵니다.

이 깊은 산골마을에 찾아온 눈은 아침을 여는 생명입니다. **REIN**



2007년 나의 겨울

이상민 _ 2학년

살랑살랑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다는 신호인 첫 눈이 오면 겨울이 되고, 웬지 모르게 마음도 바뀐다. 겨울엔 눈이 오고, 끼입은 옷들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고, 얼굴과 손, 발이 다 시리지만 웬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 질 때도 있는 것 같다. 옛날 생각이 나서일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난 이맘때가 되면 주로 여행을 떠났다. 여기저기로 캠핑을 가서 날마다 썰매를 타며 놀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얼음판에서 놀다가 얇은 얼음이 깨져서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다닐 시절에는 졸업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눈이 무릎까지 쌓였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왔던 건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작았던 건지... 겨울이 오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순수하게 싱글싱글 웃던 어릴 적에 생각나서 가슴이 찡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진다. 이처럼 많은 기억들이 내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겨울,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2007년의 겨울은 간디에서 맞았다. 얼마 전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눈 온다! 밖에 눈 와!”를 연달아 외치자 뭔가 마음에서 피어난 달까? 뭔가가 화악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내년을 계획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온 것이다.

다들, ‘특히 나’는 눈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

자 바깥으로 달려 나갔다. 까만 하늘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눈이, 겨울이 뭐길래 잠시지만 그 순간 우리 모두를 웃게 하는 것 일까. 첫 눈은 정말 예뻐다. 모두의 환한 얼굴과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에는 첫 눈이 올 때까지도 주홍빛을 띄며 남아있는 봉숭아말 생각과 친구들 생각, 크리스마스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떠올랐을 것이다.

겨울은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많이 나고, 추워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 추위에 동사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는 그런 계절이다. 하지만 난 왜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겨울, 그리고 12월하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난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떠나 난 그냥 크리스마스가 좋다.

지금은 겨울이다. 간디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 너무나 예쁘고 반갑다. 언제나 그렇듯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가장 크다. 간디에서의 첫 1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아쉽다. 간디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하고 예비학교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입학한 뒤 무빙스쿨을 다녀오고

했던 것들이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두 달의 겨울방학이 지나가면 이제 2학년이 된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내가,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이곳의 학생이라는 자존감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었는데 벌써 2학년이 되고 후배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는다.

2007년은 나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아름다웠던 그리고 힘들기도 했던 2007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8년의 시작도 잘 해보고 싶다. 출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 느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리**



겨울의 따뜻한 산행

안효진 _ 6학년 지웅 어머니

웅이야 네가 중학교 2학년, 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이구나. 1월 말 개학을 앞두고, 한해를 잘 보내기 위해 우리는 설악산을 가기로 했어. 토요일 밤에 출발해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깜깜한 새벽에 랜턴을 켜고 오색부터 설악산을 타기 시작했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찍 출발한거야. 그 시간에는 우리 말고도 깜깜한 산을 타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 곳곳에 불빛들만 보이는 게 장관이거든. 근데 웅아,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데 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여름에는 물과 등산화만 있으면 되는데, 겨울엔 벌써 옷차림부터 다르잖니. 미끄러지지 말라고 날카로운 아이젠 차고, 방수등산화에 내복바지와 겹 바지, 또 잠바까지 입어야 하잖아. 장갑, 모자도 쓰지.

또 가방은 얼마나 무겁니. 여벌옷도 준비해야 하고. 무거운 보온물병, 생수 통까지.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든든한 식사를 할 때 우린 아주 가볍게 먹었었어. 왜냐고? 짐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거든. 우린 그 때 말이야, 옆 사람들이 먹는 고기와 밥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우리도 내려가면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기로 하고 산행을 계속했지.

그런데 자꾸 뒤쳐지는 엄마 때문에 대청봉에 도착하니 예정시간보다 2시간은 늦었었어. 대청봉

은 원래 바람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서있기 힘들어서 나무의 키도 작은데, 이 날은 아니었어. 마치 봄날 해바라기를 보는 것처럼 따뜻했거든. 물론 바람도 없었고.

생각해봐. 1월 말 설악산 대청봉에서 찍은 사진이 스웨터 차림이었잖아. 장갑? 물론 벗었지. 봄날 동네 언덕배기를 올라가 찍은 사진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휴식은 거기까지인 것 같았어.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야 하잖아. 능선을 타고 가던 중에 너희들 얼굴을 보니까 빨간 거야. 아차! 어두울 때 올라와서 선크림 생각을 못했거든. 게다가 쌓인 눈이 빛을 반사해서 우리 얼굴은 마치 1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 부랴부랴 선크림을 바르고, 잠시 쉬면서, 아낀 간식을 나눠먹고, 또 먹고 싶은 음식 얘기에 신이 났었지.

웅이야 알지? 겨울 산을 내려올 때의 보너스 말이야. 바로 엉덩이 썰매지.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리지 않고, 아이젠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바로 '재미 만빵', '스릴 만빵' 아닐까? 그런데 산이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내리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반복되는지.

먹은 건 없고, 다리 뻘고 누워 편히 잔 것도 아니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자꾸 쳐지는 엄마 때문

에 너희는 너무 지쳤었어. 한계령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갈림길에서 아빠가 먼저 내려갔지. 오색에 있는 차를 한계령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였어.

이때부터 우리 셋이서만 내려오는데, 추위와 미끄러움에 하산길이 더 위험했지.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자고 서둘렀는데 그게 잘 안되더구나. 도대체 무릎이 말을 안 들어. 4시 반이 되니까 해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린 시계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했었어. 장갑 속에서도 뽕뽕 언현이 손. 그리고 풀어헤쳐진 잠바. 그 당시는 추위로 생각까지 언 듯 했었지. 드디어 해가 떨어졌다. 랜턴을 켜고 올라왔었는데, 또 랜턴을 켜고 내려가게 되었어.

그런데 그 랜턴 하나마저 꺼졌어. 그래도 은은

한 달빛과 차가운 흰 눈이 만나 아주 깜깜하지만은 않았지. 웅이가 먼저 길 확인을 하고 다시 와서 우리와 걷기를 반복했고, 또 자꾸만 나타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보고, 네가 말했잖아. “엄마, 현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너도 마지막 오르막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 그때의 네 사랑과 헌신이 그 위기를 이겨낼 큰 힘을 만든 것 같다. 우린 그때 껴안고, 울고, 웃고, 그러다가 우리를 찾아 올라오는 아빠의 외침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하니? 7시 반이 되어서야 한계령에 다다를 수 있었고, 모두의 안전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었구나. 내가 너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었니?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YES IN**



누구 꼬리가 이렇게 길지?

이광구 _ 6학년 이나리 아버지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게 뭔가요?”

며칠 전 말지 기자가 찾아와 물은 질문이다. 마침 지난해 어느 결혼식장에서 만난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그 선배는 먹는 건 확실히 나아졌다고 했다. 먹는 걸로 대표되는 물질의 양은 좋아졌지만, 인간관계나 행복감 등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 선배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자격증이 5개나 된다. 그런데 그는 만날 때마다 보면 늘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만큼 삶이,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게 먹는 거 말고도 많다. 집도 그 중 하나다. 어릴 때 집은 대부분 지금처럼 아파트 같은 게 아니었다. 특히 추운 겨울은 불편이 심했다.

“누구 꼬리가 이렇게 길지?”

어릴 때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훈계 겸 우스개 소리로 들던 말이다. 난방이 부실하고 문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때다. 당시엔 겨울철 준비 가운데 하나가 문풍지를 바르는 것이었다. 지금 아이들은 문풍지가 뭔지도 아마 모를 일이다. 문과 문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창호지를 깃털처럼 붙이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그

걸 보면 아마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며 웃을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이다 보니 겨울철엔 문을 잘 닫고 다니라는 게 어른들의 단골 잔소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 즈음 어머니한테서 들던 말이 있다. 없는 사람에게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는 말이다. 더위야 어떻게든 견디는데, 추위는 돈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고 심한 경우는 얼어 죽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감옥 경험을 쓴 신영복 선생의 책을 보니 거기엔 차라리 겨울이 낫다는 말이 나온다. 여름철엔 좁은 감옥에서 옆 사람이 바로 열 덩어리이기 때문에 미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엔 옆 사람의 따스한 온기가 고맙게 느껴진다는 말이었다.

먹는 것도 나아지고 집도 나아지고 없던 자동차나 전자제품도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둥, 일자리가 없다는 둥 아우성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너나없이 다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가정재무 상담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반론이 떠오른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싸우고 그러나?’

나리에게 핸드폰도 사주지 않고, 원하는 물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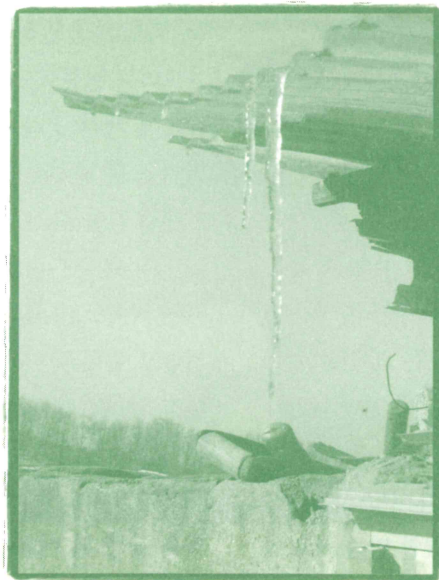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용돈도 풍족하게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리가 불행하고 꿈을 저버리고 그럴까? 나리보다 훨씬 더 어린 초등학교 6학년 보리는 엄마 아빠를 말 그대로 들들 볶아 결국 핸드폰을 샀다.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엄마한테 억지로 지원도 받아 디카도 샀다. 중국 갈 때 나리가 빌려갔는데, 보리는 화면이 긁혔다고 무지 화를 내기도 했다.

물질이야 나리보다 보리가 훨씬 더 많다. 그렇

다고 나리보다 보리가 훨씬 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건, 돈 씹씹이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놓고 따져볼 일이다.

학생들은 다들 시험 못 봤다고 자책하고, 어른들은 늘 경기가 안 좋다고 불평이다. 그렇게 자책하고 불평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바람 쐬쐬 부는 추운 겨울에도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다.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큰 기상을 펼쳐보자. **REIN**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한솔 _ 6학년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왔다. 간디학교에서 맞이하는 무려 다섯 번째 겨울이다. 학교가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 겨울이면 다른 곳 보다 몇 배는 추운 것 같다. 하지만 추웠던 것만큼 즐거운 기억도 많다. 어제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간디에서 보낸 여러 번의 겨울을 기억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큰 머리를 굴려본다.

지금은 새 기숙사가 지어져서 밤에도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낮이고 밤이고 뜨거운 물이 흘러넘치지만 옛 기숙사는 끔찍할 정도로 추웠다. 겨울에 따듯한 물로 샤워를 하려면 일곱 시 전에 일어나야 했고 낡은 보일러는 끝까지 돌려도 제멋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좀 심하게 과장해서 말하면 옛 기숙사에서 취침은 잠을 자는 것보다 살아남는 일이 우선이었다. 심한 방은 밤에 바지와 티셔츠 두 세 겹에다가 파카까지 입고 자는 방도 있었다.

아침에 기상 때문에 깨우러 가면 파카를 입은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자던 모습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정말 심한 방은 그 전날에 간식으로 나왔던 배즙이 다음날 아침에 얼어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자칫하면 자다가 입 돌아갈 상황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 살아남았다는 것이 신기하다. 하지만 추웠던 만큼 서로에

게 더 따듯했던 기숙사였던 것 같다. 지금은 따듯한 물이 조금만 나오지 않아도 투덜투덜 불평을 하는걸 보면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다.

또 겨울하면은 눈에 대한 추억을 빼 놓을 수 없다. 눈이 발목정도만 쌓이면 비로 포대, 장판, 스텐으로 된 큰 대야 등등 여러 가지 깔고 앉을 수 있는 것이면 다 들고 학교 옆 비탈길로 향했다. 찾길이라 좀 위험한 곳이지만 눈이 온 것만으로도 흥분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주방 썸 몰래 대야를 가지고 가서 신나게 타다가 결국엔 빵꾸를 내서 몰래 버리고 왔던 적도 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지만 정말 죄송...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하던 이학년 때 눈 때문에 생긴 웃지 못 할 사연이 하나 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밤이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고 이대로 잠들 수 없었던 나는 선배 한 명과 여학생 몇몇과 새벽에 만나서 놀기로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던 시간에 만나서 도서관에서 난로를 켜놓고 킁킁대면서 놀고 있었는데 잠가났던 문이 덜컥 열리면서 사감 쌤이 들어왔다. 결국 우리는 가족회의 안건까지 올라갔었고 노작 1주일이라는 폭력사건 보다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큰 벌칙을 받게 된 이유는 그날 우리가 없어진걸 알고



놀란 사감 쌤이 여학생들을 다 깨웠다고 한다. 자다 새벽에 깨서 화가 잔뜩 난 여학생들의 항의 덕분에 우리는 노작일주일이라는 별을 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새벽에 잠도 안자고 만나서 뭘 할 얘기가 있었을까? 나도 내가 신기할 따름이다.

내가 이학년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입학식까지 연기된 적이 있다. 그때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했었는데 좋은 추억인지 나쁜 추억인지 우승은 했지만 3시간 동안 눈사람을 만들어서 시린

손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종이 한 장으로 쓰기에는 겨울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다.

겨울은 올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많이 피곤한 시기이다. 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듯 춥기 때문에 더 따뜻한 간디학교의 겨울이 올해도 찾아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디 IN**



추억

전동녕 _ 4학년

지난 겨울 일이었다. 내가 14살 때, 겨울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12월 3일에 첫 눈이 내렸다. 내가 너무나 겨울을 좋아해서 해마다 기다린다. 첫 눈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눈이 떨어지고 땅에 닿자마자,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들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무언가 마음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눈이 멈출 때까지 하늘을 계속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눈을 잡고 싶었다.

2006년, 겨울이 왔다. 하지만 작년처럼 기쁘지 않다. 겨울이 너무 빨리 온 것인지 바람이 차가워 몸만 움크리고 싶다. 11월 6일, 이젠 지친 눈으로 첫 눈을 본다. 작년의 눈과 다르게 보인다. 눈에 대한 신기함이 사라져간다. 눈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떨어지는 것 같다. 첫 눈을 보고 생각에 잠긴다. 내가 눈이 내리는 것을 왜 볼까?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젠 첫 눈에 등을 돌린다.

2007년 11월 19일, 역시 첫눈이 내렸다. 날이 갈수록 찬바람이 일찍 찾아와 겨울이 자기 얼굴을 들이민다. 찬바람이 내 목을 쓸고 간지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이제 겨울이 지쳐간다. 다시 가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든다. 겨울이 지겨워지고

가을이 그리워진다. 겨울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가을의 시간은 반대로 점점 줄어든다. 다시 내가 첫 눈을 신기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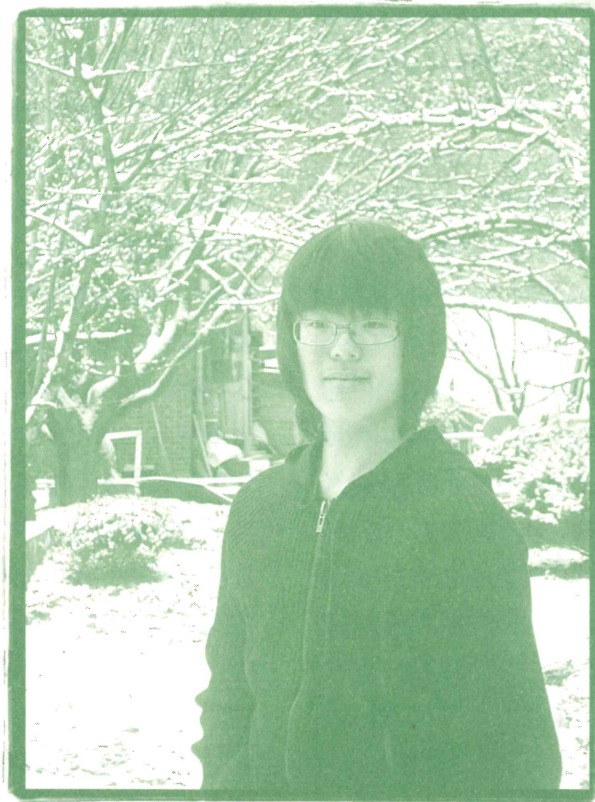
함박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눈이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눈에 비해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 계속 쳐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8초.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8초, 작은 시간동안 나는 기도를 한다. 첫 눈을 다시 보고 싶다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다.

발과 손이 차가워지고 겨울을 생각하는 내 마음도 차가워진다.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여러 겹, 두껍게 입어 생활을 한다. 겨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눈이 그쳐도 찬바람들이 내 주위로 오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면 눈도 달갑지 않게 생각되기도 한다. 내가 왜 지겨워할까? 신기함이 사라져서? 아닌 것 같다.

설레임이 사라지고, 눈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면서 겨울도 더 춥고 지겨워지는 것 같다. 눈을 안 보고 그냥 지나쳐 생활을 계속 한다면 춥다는 생각만 든다. 마음으로 눈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나의 느낌이지만 눈을 설

레는 마음으로 만나고, 여유롭고 천천히 바라보면
겨울이 춥다는 느낌이 안 든다. 오히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지금 순간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
다. **REIN**



마음을 여는 길, 마음대로

장성규 _ 기자(6학년)

‘부처는 마음을 지배하고 범부는 마음에게 지배당한다.’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이 있다. 우리 또한 마음에 지배당하는 범부일 확률이 높고, 부처처럼 자기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한다. 조종한다기보다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야 할까? 마음은 많은 얘기를 하니까 말이다.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태영철 쌤이 개설하신 이 수업은 기존에 있던 수업에 비해서 상당히 신비롭기도 하고, 새롭게 보이기도 한다. 보통 외부에서 누군가가 만든 것, 발명한 것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고 알고 있는 공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것,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한다니 기존의 상식에서 보기에는 새삼스럽기 그지없다.

마음공부는 마음의 성질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부이다.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자기 삶을 아주 신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여러 위인들과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 종교인들,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예전부터 그 연구를 해왔

고, 요즘 동양의 문화들이 서양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마음대로 수업은 그 일부를 배워 배워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행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마음의 성질을 공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논리와 연구의 영역은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영역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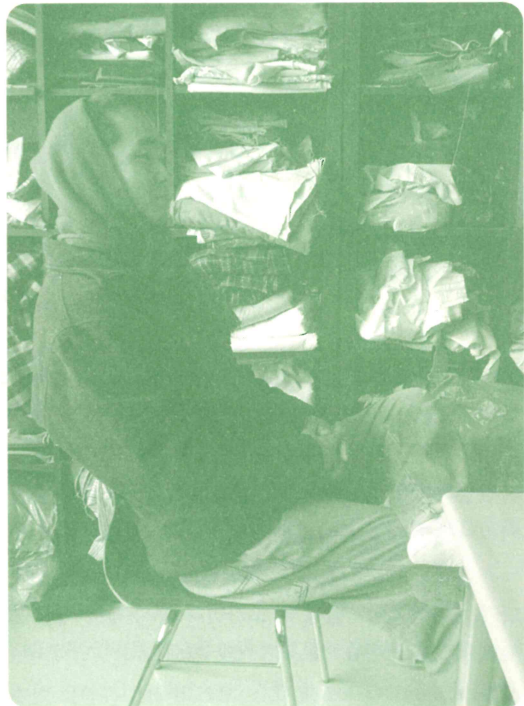
종교나 여러 도인이나 성인들이 자기 마음을 알기위해 알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나 방법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몇 주간은 ‘마음’이라는 KBS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고통 없이 분만·수술하기, 알레르기, 트라우마 치료 같은 실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랑 연결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 공부하고, 평범한 명상이나 숨 쉬는 것에 집중하기, 숨을 내 쉴 때 마다 옴이라고 말하면서 잡념을 없애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은 쉬운 명상법들을 집적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은 태쌤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에 빠져있는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기, 생각 때문에 기계적인

마음을 느낌으로 살아있게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마음공부의 궁극적인 단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장이 미치는 영향이나, 과거에 계속 빠지는, 기계적으로 되는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력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수업을 개설하신 태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음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쌤은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자기 힘, 희망을 내안에서 봤다고 한다. 그래서 이 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의 힘을 얻는 다는 것, 그리고 10대 때 자기 마음의 힘을 경험해보고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한다.

이 수업을 소개하면서 태쌤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다. '사람은 원래 근본에 있어서 아주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회복하면 진짜 큰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자



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경우에는 과거에서 빠져나오기는 내가 평소 원하고 있었기에 과거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삶이 상당히 재밌어졌다. 완벽하게 미래와 과거로부터 벗어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긴 한 것이 현재의 부족한 나,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고, 좀 더 자유롭고 즐거워지게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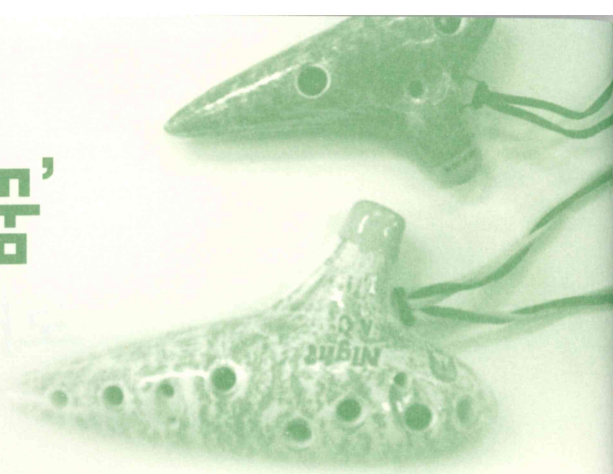
믿는 사람에게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 다 같이 지금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자. 그리고 자유롭게, 큰 삶을 살아보자. **REIN**



맑은 자연의 소리

‘거위의 꿈’

김유진 _ 4학년 (기자)



올해 가을 쯤 새로 생긴 간디학교의 유일한 악기 동아리 오카리나 ‘거위의 꿈’은 요즘 들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마다 서툰 연주지만 열심히 연습하는 마음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거위의 꿈’ 회장 2학년 김혜민 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위의 꿈’ 김혜민 회장님, 어떻게 오카리나를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 처음에는 1학년 때 개인프로젝트로 오카리나를 했다가, 2학년 때 또 한번 더 오카리나를 주제를 개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바탕으로 장희숙 선생님께서도 오카리나를 가지고 계시고, 오카리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웃음)

• ‘거위의 꿈’ 이름도 예쁘고 되게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 딱히 특별한 뜻은 없지만, 이탈리아 악기인 오카리나의 뜻은 작은 거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위, 거위 하다가 ‘아! 거위의 꿈’ (...) 이런식으로 해서 예쁜 이름이 생겼어요.

• 우와,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아 요즘 들어서 모임이 잦던데 무슨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 우선, 실력이 된다면 작은 연주회라도 열 생각인데요. 우리 동아리가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 히히~

• 오카리나를 더 쉽게 잘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

가 있으시다면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 오카리나는 리코더와 비슷한 운지법이라 누구나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려운 건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데요, 꾸준한 연습을 한다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그럼 동아리 대표로써 힘든 적이 있으셨나요?

- 개인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과 방송을 못 듣거나 학교 일정이랑 겹치는 일이 많아서 동아리 사람들과 모이기가 힘들어요.

•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의 대한 계획이나 바램이 있으신가요?

- 딱히 큰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웃음) 그냥 회원수도 늘리고, 실력도 늘려서 ‘거위의 꿈’을 위한 작은 연주회도 열어보고, 학교 안에서 오카리나 소리가 맑게 울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럼 마지막으로 동아리 회원들에게 부탁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 모임시간은 화요일 점심시간 1시 30분에 방송하면 꼭 모여주시구요. 맑고 고운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많이 노력해요! ‘거위의 꿈’ 파이팅! 그리고 간디인들 ‘거위의 꿈’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쁜 스케줄이 있는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해주신 김혜민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 시작한 ‘거위의 꿈’ 많이 발전해서 학교에 맑고 곱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IN**

간디 사랑, 동원 사랑

조하늘 _ 3학년 (기자)

2007년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학생회 대표가 구성될 예정이라
1년 동안 학교를 위해 힘써 준
학생회장 전수빈양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회장으로서 힘든 많은 일을 겪고
퇴임을 앞둔 전수빈 양을 만나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
세요?**

- 일단 마음은 시원하지만 올해가 잘 정리되어야 내년
도 학생회가 잘 돌아갈 수 있으므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있어요.

**일 년 동안 도란회의, 핸드폰 대 토론회 등 커다란 일들이 많
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맡고 있
을 때 그러한 일들이 터져서 고맙기도 해요, 주어진 역
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면서 배운 것도 많
거든요.

특히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 회의 하느라 잠 못 잤을 때, 졸릴 때, 체했을 때, 배 아
팠을 때, 안 그래도 바쁘는데 논문발표까지 겹쳤을 때요.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 그런 걸 느꼈나? 하하 형식적으로... 애들이 학
교가 잘 돌아간다고 할 때요, 가장 힘이 나고 보람을 느
껴요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회의는요?

-학생회 힘 받기 대회 LT (leadership training) 이요.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의
를 갖고 참여해 주었거든요. 음..... 또 지난 주 가족회
의요! 가장 최근이거든요 하하하

지금까지 끝어온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하하하하~ 쑥스럽게 그런걸... 노코멘트요 하하~

**퇴임을 하고 회장의 책임을 벗고 나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요?**

-실컷 자면서요! 히히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
할 시간을 가져 보려구요.

내년도 학생회장들에게 해 줄 말은?

-화이팅!

마지막으로 할말은?

-모두들 1년 동안 수고하세요! 다음 학생회는 회의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강동원 생일
파티 갈 사람~

네. 지금까지 인물 탐방 사상 이례적으로
가장 인터뷰를 거부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미래의 강동원 부인이 되실 전수빈양을
필사적으로 쫓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으로 인해 간디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기자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대답해주신 전수빈양 감사합니다! **아진**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다

이에나 _ 6학년

지난 달30일, 한겨레신문을 읽던 중에 사설란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 우리 국민들은 극히 제한된 프레임에 갇혀서 이번 대선과 그 후보들을 바라본다는 내용으로, 그 프레임에 의해 소외되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도 좋았지만, 사실 난 글쓴이가 사용했던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갇힌 프레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불거진 도난사건과 이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 우리는 개개인의 제한된, 오직 자기중심으로 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7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11월 현재까지 우리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도난사건이 거의 주마다 1회 이상 일어났고, 그 피해액은 100만원이 넘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극도로 치달자 1주일간 수업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 관련한 회의만 했다. 힘들었던 점은 회의 2~3일째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어 회의 진행이 조금 힘이 들었던 적이 있다. 우리에게 회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간디인 모두가 마음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 이것이 몇몇 간디인의 프레임 속엔 공동체보다는 ‘내 시간’과 ‘내 일’만 꼭 차 있어 이 공동체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중 하나이다. 간디학교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러했는가 싶어 지난날을 회상해본다. 첫 중학 과정에 입학했을 때, 나는 초경 축하를 부모님이 아닌 친구들 그리고 다른 선배들로부터 받았다.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는 내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 언젠가 여학생 중 한명의 초콜릿이 몇 개 없어졌는데, 모두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주마다 명상을 하고, 가져간 사람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쪽지를 돌렸다.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 날에, 나는 여자기숙사 게시판에서 ‘그분(우리학교에서 물건이나 돈을 가져간 이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의 사과편지를 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과편지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도난사건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서 그런지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 새 우리 사회가 변해버려서 ‘작은 사회’인 간디학교도 그와 같이 도덕적 개

넘마저 달라져 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잘못’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게 되고, ‘우리문제’도 내가 당한일이 아니면 내 일이 아닌 것이라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공동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체적 의지’의 결핍이 공동체 생활에서 발견되는 ‘무책임, 무개념’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후배들을 보면 가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내가 그 나이에 만났던(그래봤자 2~3년 전이지만) 간디학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문제’가 곧 ‘내 문제’이고, 나눔이나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해 함께하는 것이 짜증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도난회의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다. 처음으로 학생들 자체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무책임, 무개념의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들춰냄과 동시에 대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몇몇의 ‘그분’들이 용기를 내어 잘못을 고백해 주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동참한 우리 학생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그러려면 ‘공동체’에 대한 개념성립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다. 흔히 간디학교에서 공동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기적 관념이다. 물론, 개인 모두를 위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은 맞지만, 나는 ‘공동체를 위하는 개인(또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공동체의 필요요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곧 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이다. 내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여, 모두의 모임이나 함



께 하는 일들을 회피하거나,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희생’이라 생각해서 안 된다. 죽어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간디학교는 적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간디에 묻혀 지낸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도, 학교에게도 좋지 않다.

간디학교는 ‘함께하는 곳’이다. 여태껏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이번 도난 사건은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킬 새로운 길이다.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 간디학교가 도난사건을 대할 때 ‘그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혹이라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다수에 의해 상처 받지 않을까 먼저 존중하고, 소통의 창을 열어놓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우리 모두’를 초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공동체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가지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길 가려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없는 길’은 절대 혼자 갈수 없는 길이다, 간디인 이라면 이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함께 가는 외딴 길’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 충분하다. **REIN**

친구랑 책이랑 꿈터에서 놀자~

윤영미 _ 기자(3학년)



올해 4월 20일 덕산 면내에 예쁜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요. 바로 간디학교와 지역사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 준 지역 공부방, 덕산 아이들의 놀이터 “꿈터”입니다.

3월 말부터 학교 선생님 몇 분과 꿈터 선생님들이 손수 꾸미고 준비해서 4월 20일 처음 문을 열었는데, 처음엔 간디 선생님 자녀들만 오다가 이제는 지역 아이들까지 하루에 최대 59명까지 출석하고 덕산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아동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덕산에 꿈터가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간디학교의 철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지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터가 필요했던 점과 문화적 소외와 가정 형편, 구조에 의해 방치된 시골의 아이들, 바쁜 간디학교 쌤들의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관심 가져줄 곳이 필요했던 점이었는데 현재 그 두 가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선생님 세 분, 연구소 선생님 한분이 계신 꿈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숙제지도, 바깥 놀이, 책 읽어주기, 그 외에도 다양한 특기적성 등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아이들이 하교해서 오면 바쁜 부모님들이 못해주는 숙제 지도, 알람장 검사를 해주고 함께 바깥놀이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땅따먹기도 하



고 나들이도 갔다 와서는 책 읽어주는 시간으로 모두 모여 앉아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그림책을 봅니다.

책 읽어주는 꿈터의 주된 활동으로 무엇보다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인데요, 책을 많이 접 할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더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고학년 언니들이 자원해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은 매달 99권씩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대출해 와서 새롭고 다양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또 꿈터에서는 무료로 간식을 나누어 줍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뛰어다니며 불량식품을 사먹던 아이들에게 날마다 우리 농산물, 부침개, 국수 같은 간식을 주니까 몸에 좋지 않은 과자도 덜 먹게 되어 다행입니다. 간식시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 특기적성 활동을 하는데 매일 돌아가며 연극놀이, 요가, 논술, 노래 부르기, 일어, 책이랑 놀자, 실과 바늘, 외국인 선생님과 영어동화 읽기, 점토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근처에 계시는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다양하고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전에는 엄마와 아기 사랑방을 운영해 3~4살 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놀러와 이야기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문화교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마다 타국에서 결혼을 하신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지도하고 그 외에도 풍물 등의 우리 문화체험과 요리 강습 등을 하는데 열 두 분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오셔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한글문화교실은 간디학교의 장희숙, 남경록 두 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간디학교 학생 봉사단이 수업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어 원활한 수업 진행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꿈터의 앞으로의 계획은 시에서 지역 아동센터로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활동도 어렵고, 현재 간다공동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로 간식이 나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기가 재정이 참 힘들어서 제천시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학부모님들과 마을 분들께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여러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꿈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선생님, 학부모님, 간식을 제공해주는 동아리 빵아저씨, 여러 시설을 지원해주는 간디학교 목공 동아리 푹푹푹, 한글교실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을 키우는 덕산면 꿈터에서 친구랑 책이랑 놀다 가세요~ **Q-EIN**

11월 5~19일 | 집중식 수업

가정학습을 다녀온 후 집중식 수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과목이 1,2,3,4 교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신청해 일주일 동안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7일 | 긴급 학부모 모임-도난관련

도난으로 인해 긴급 학부모모임을 가졌습니다. 1부는 도난에 대해서 2부는 문화에 대해서 3부는 학부모님과 쌤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긴급 학부모모임으로 인해 우리학교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학생들이 모여 도난관련 회의를 했지만 긴급학부모 모임으로 인해 모든 간디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 | 1학년 대주제프로젝트 '춤과 나'

1학년 대주제 프로젝트 '춤과 나' 에서 주최한 문화의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공연도 보고 마지막에는 즐겁게 댄스파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의 밤으로 인해 춤과 더 가까워 졌으면 하는 것이 '춤과 나' 아이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11월 26~27일 | 김장

겨울이 되면 해마다 하던 대로 이번에도 2일 동안 김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김장은 더욱 추운날씨에서 했지만, 사람들이 제 몫을 다해 주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 먹을 김치를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김장' 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1월 28일 | 문화의 밤 - 간디음식문화

식당의 발전을 위해 간디 식문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식당예절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가 원하는 식당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큼 소중한지에 대해서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앙케이트도 하였습니다. 건강한 간디식당이 더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12월 1일 | 학생회장선거

벌써 2007년이 다 가고 새로운 회장단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 팀의 후보자들이 나왔고, 후보자들의 기발한 유세와 공약으로 간디인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하여 기호3번이 당선되었습니다. 2008년의 간디학교를 이끌어줄 기호3번 파이팅 입니다.



12월 3일 | 문화의 밤 - 태국 합합 팀

12월3일 문화의 밤 태국에서 합합 팀이 왔습니다. YMCA에서 주최한 페스티벌에 갔다가 우리학교에 들려 즐겁게 춤을



추며 놀며 문화의 밤을 즐겼고, 우리학교에서도 환영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며 놀 수 있는 문화의 밤이라 좋았습니다.

12월 16일 | 방학식 2월 23일 | 개학식

1년을 마무리하고 새봄을 준비하는 겨울방학식과 개학식이 있었습니다. 방학식을 하며 간디인상 시상식이 있었고 서로 뜨겁게 안으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긴 방학을 잘 보내고

2월 23일에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1월 7~25일 | 겨울 계절학교

방학 동안 초등학교 친구들이 간디에 와서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3주 동안 3차에 걸쳐 진행된 계절학교에서는 공동체 놀이, 빵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썰매 만들기, 눈썰매와 비료포대 같이 신나고 즐거운 체험이 가득했습니다.



3월 1일 | 새로운 출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시린 겨울바람과 따스한 봄햇살이 씨름을 하는 사이, 새로운 간디 가족을 맞이하는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모두 25명의 1학년 새내기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중, 고 과정 6학년까지 모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새출발 하신다는 의지를 담아 손을 꼭 잡고 입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새내기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합니다.

김은정 _ 기자 2학년

| 편집 뒷 이야기 |

긴 겨울방학이 있는 탓에 겨울호와 봄호를 따로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겨울과 봄을 통합하여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학 전에 기자들이 이미 기획해 놓은 주제가 '겨울'이라 봄소식을 전하기에 좀 추운 감이 있어 죄송하기도 해요. 공색한 변명에도 소식지를 꾸준히 기다려주시는 분들 덕에 기자들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애써 주신 쌤, 영미, 혜영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긴 겨울방학이 지나면 아이들은 봄눈 튀우는 나무처럼 불쑥 자라서 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도 신기하고 설레는 풍경이지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꽃발입니다. 기쁜 봄날 되시길.

- 장희숙

가슴 뛰도록 설레던 길

오래도록 기억 없이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무겁고 더딘 걸음으로
아득한 언덕을 넘었습니다.

먼 눈길로 바라봅니다.
오랜 그리움 같은 언덕 아래
한번쯤 본 듯한 낯익은 길을 따라
다시 걸어야 할
처음 같은 시간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얼마나 걸어야
어디쯤 발길이 닿아야
손마디 굵은 삶이 만들어진
켜켜이 같은 모양이 하나 없는
돌담 같은 시간에 이르게 될까요.

아마 다는 알 수 없겠지요.
다만 지금껏 초록 숲이 그리웠듯이
까만 어두움조차 초록가슴으로 품었듯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처음 그 설레던 길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에 담았을 따름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 길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 의연한 숲을 기억하고 있다면
가슴 뛰던 초록 숲,
먼저 눈시울부터 붉어지는
걸음을 내 딛었을 테지요.
그렇게 시작하였을 테지요.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다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은 대부분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로 사용했고, 일부 대안교육연대 지원과 홈스쿨 네트워크 운영, 타 대안학교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썼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651분 22,645,000원

(주)두인가전 (주)모닝스타 (주)어투스산 (주)티에스마이크로 (주)한수섬유 가은희 강경선 강기갑 강덕수 강동우 강민택 강병임 강상진 강석도 강수돌 강순자 강승규 강신현 강영금 강영상 강용중 강윤주 강은정 강은희 강은택 강지혜 강창규 강창석 강혜영 고수원 고지철 고창순 고태미 공치성 광용호 광지훈 구경란 구자인 국정훈 권도오 권수경 권숙영 권영미 권영숙 권춘현 금상호 김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한 김극준 김기만 김길화 김남수 김남식 김남우 김대석 김대현 김동선 김동석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란 김미옥 김미정 김민지 김민진 김배홍 김병석 김상덕 김상의 김상연 김서현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해 김성희 김수갑 김숙자 김순경 김순옥 김순임 김슬기롱 김승진 김승환 김영국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진 김영희 김옥자 김옥주 김옥진 김 용 김용경 김용규 김용철 김용필 김유신 김유태 김윤섭 김윤찬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장한 김장현 김재구 김재권 김정규 김정미 김정자 김종덕 김종용 김종우 김준혁 김준희 김종근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용 김지향 김진용 김진우 김창석 김태홍 김평호 김학심 김학희 김현숙 김현식 김현일 김현진 김혜민 김효연 김홍순 김홍일 김효진 김희교 김희균 남경록 남경태 남경호 남궁원 남기태 남사랑 남승록 남용기 남우용 남지화 남혜진 남홍석 남홍신 노경수 노경숙 노경환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영숙 류춘희 마미경 마석훈 문성룡 문신호 문영미 문정훈 문현주 민영기 박경미 박경현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미경 박미나 박민수 박복자 박봉규 박상만 박상현 박선미 박성수 박성열 박수정 박시홍 박연하 박연선 박영자 박영희 박용규 박용기 박윤태 박인옥 박재능 박재성 박정기 박정림 박정범 박정혜 박종국 박종원 박진석 박진수 박진현 박진호 박창순 박채영 박철운 박현준 박현향 박형규 박환홍 박홍식 방종환 방춘배 배민서 배진우 배필은 백동민 백동훈 백영기 백미숙 백승훈 변기영 변문기 변순영 변영애 변윤수 변현정 부상준 빈종일 서미화 서석중 서예경 서원일 서인자 서정현 서진섭 선영비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상희 손영미 손현석 송선경 송윤순 송준섭 송하동 신관수 신동식 신란주 신부소 신선영 신승임 신윤숙 신주영 신창삼 신현덕 신현정 심재용 심형섭 安藤麻洋子 안미정 안승범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태동 안향식 양병만 양서희 양성자 양소영 양수연 양선영 양정숙 양해동 양후남 엄도경 엄정미 여태진 연혜경 연계선 오강순 오기숙 오길환 오병갑 오보환 오전옥 오지혜 오태경 오현옥 왕정석 왕정환 우기백 우성호 원영준 원현구 유경오 유덕선 유상봉 유수진 유연열 유윤모 유은미 유인수 유정훈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한목 유향옥 육기엽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석한 윤숙경 윤요성 윤은주 윤태일 윤한식 이강연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광숙 이광일 이기하 이기현 이낙원 이덕순 이덕자 이도중 이명조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나 이미정 이민주 이병순 이병운 이보관 이상건 이상구 이상현 이상훈 이선애 이선영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순임 이시룡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옥 이승희 이신혜 이양환 이영남 이영호 이요순 이요훈 이윤복 이 웅 이윤숙 이윤수 이은신 이은주 이인숙 이일우 이재성 이정남 이정미 이정석 이정섭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숙 이진우 이철배 이충우 이하영 이한진 이현주 이형철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이희정 임명희 임병포 임영빈 임오섭 임은숙 임진희 임형택 장규식 장명원 장미자 장성윤 장세희 장현정 장희숙 장희정 전국진 전미영 전병민 전서연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중철 전혜영 전홍기 정길평 정난주 정덕희 정명숙 정문자 정미소 정병수 정병희 정상용 정상훈 정석현 정성옥 정연희 정영수 정영숙 정영아 정영주 정영천 정영환 정용국 정우석 정의순 정이영 정이화 정인숙 정재금 정재민 정재수 정재윤 정종미 정종숙 정종태 정지은 정태균 정혜영 정현숙 정희도 정희정 조경선 조경숙 조경애 조경희 조규석 조만진 조배원 조복석 조상희 조성옥 조숙자 조영도 조윤희 조 은 조은영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창용 조철연 조향미 조혜정 주성수 지연철 지재원 진상정 진성기 진영숙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차원희 차은경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문배 최미숙 최미애 최상윤 최선희 최성철 최소정 최영준 최 웅 최은미 최인화 최재민 최재호 최재훈 최정옥 최정윤 최중선 최중훈 최준석 최진옥 최해만 최화영 하경희 하광명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동열 한상아 한상철 한승동 한용택 한점숙 한정민 한 현 함재도 하금엽 허성립 허성희 허영순 현은영 형임순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윤숙 홍주영 홍창식 홍희경 황국희 황돌남 황명숙 황선홍 황인숙 황지연

•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43-653-5791, 010-9870-3362 담당 남경록)

• 주변에 소식지를 받고 못하고 계시는 후원인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 후원인들의 따뜻한 글을 기다립니다.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담은 글을 보내주세요.(이메일 : go1201@hanmail.net)

• 주변에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 분들도 학교로 연락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학교홈페이지의 CMS 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연락 주시면 신청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이 밖에도 많은 도움들이 있었겠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함이 송구스럽습니다. 혹시나 누락되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